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39장

다 같 이

기 도

맡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쁨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다 같 이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 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4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설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 성전을 향해 걸어가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떠올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이 참으로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결정권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주님을 닮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헌신한 땀의 대가를 누릴 때 가장 큰 행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여행을 바라기보다, 내 손으로 일한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둘째,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소 짓게 하고, 아내는 온 가족에게 기쁨을 전하여, 우리 집이 늘 잔칫집처럼 웃음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기도가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냈듯이, 자녀를 위해 심는 부모님의 기도는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의 웃음과 간절한 기도가 어우러질 때, 우리 가정은 메마르지 않는 포도원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의 복입니다. 성경 시대에 감람유(올리브유)는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왕을 세우며, 아픈 상처를 낫게 하는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귀한 기름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듣는 듯 세워주며, 지친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보배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족의 빈자리는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지금,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서로에게 든든한 감람나무와 기쁨의 포도나무가 되어주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
호
와
를
경
외
하
며
그
길
을
걷
는
가
정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
 -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549장

- 1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 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2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 3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세요

설명절 가정예배

2026